



경희대학교

2023학년도

모의논술고사 문제지(사회계)

[온라인]

지원학부(과) ()

수험번호

성명 ()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마시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시오.
2.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마시오.
3. 답안지에 답안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어떤 것도 쓰지 마시오.(예: 감사합니다. 등)
4. 답안지에 찍어쓰기를 포함하여 각 논제별로 지정된 분량을 준수하여 작성하시오.
5. 사회계 문제지는 총 4쪽입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브라질 남부 도시 포르투알레그리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시행의 모범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도시에서는 1989년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도입하고, 시 전체를 17개 지구로 세분화해 지구별로 4~5월에 주민 총회를 연다. 시 전체 주민 참여 예산 회의에 참여하는 대의원은 지구별 주민 총회에서 선출되며, 이들은 이웃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 전체 대의원 회의에 전달한다.

이 제도의 도입 이후 이 도시에서는 현재까지 6,300여 건의 사업이 주민들이 편성한 예산으로 집행되었다. 또한 제도 도입 10년 만에 식수 보급률은 89%에서 98%로, 하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 비율은 46%에서 85%로 상승했다. 저소득층 지역에 학교가 늘어나면서 공립학교 재학생 수는 10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지방 분권에 따른 지방 자치 단체의 자율성 보장과 지방 행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의 도입,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 및 참여 덕분에 이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나]

통상적 의미에서 그가 자기중심적이든 아니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요점은 그 누구든 어떤 한 사람이 한정된 분야 이상을 조사하고, 한정된 수 이상의 필요에 대해 그 시급성을 모두 인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그가 자신의 육체적 필요에 관심이 쏠려있든 아니면 모든 아는 사람들의 복지에 따스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관없이, 그 사람 자신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목적들의 범위는 언제나 모든 인간들의 필요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편린에 불과할 것이다.

이것이 모든 개인주의 철학이 기초하는 궁극적 사실이다. 자주 단언하는 것과는 달리 개인주의는 사람이 자기중심적이라거나 이기적이라거나 혹은 그래야 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개인주의는 단순히 논쟁할 여지가 없는 다음과 같은 확실한 기본적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우리의 상상력의 한계로, 우리는 우리들의 가치척도 속에 사회 전체의 필요들 가운데 일부분 이상을 포함할 수 없으며, 또 엄격하게 말해서 가치의 척도들은 개인 각자의 정신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인들마다 다르고 또 상충할 때가 많은 가치의 단편적 척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실로부터 개인주의자들은 개인이 정해진 한계 안에서는 다른 사람의 가치나 선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치와 선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즉 이 영역들 안에서는 개인의 목적 체계가 최고의 선이며, 다른 그 누구의 그 어떤 지시에도 종속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다.

[다]

최저 임금제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가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적용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다. 최저 임금 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저 임금을 결정해 고시한다. 사용자는 매년 8월 31일까지 최저 임금액, 최저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효력 발생일 등을 근로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 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 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 임금보다 낮을 때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 노동 관서에 신고해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라]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려면 시장 참여자 간의 자유로운 경쟁과 교환을 통해 시장 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리가 작동하는 시장을 경쟁 시장이라고 한다. 경쟁 시장에서는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에 개별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

<뒷면에 계속>

을 줄 수 없다. 이들은 경쟁을 통해 결정된 시장 가격을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래에 참여한다. 또한 기업의 시장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기 때문에 소수의 기업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경쟁 시장에서 시장 가격은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인 경제 행위를 하도록 이끌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시장 가격이 형성되면 소비자는 그 가격 수준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하므로, 상품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시장 가격이 형성되면 생산자는 그 가격 수준에서 이윤이 가장 많이 남는 상품을 선택하여 생산량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 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생산한다. 이처럼 시장 가격은 경제 주체들에게 합리적인 경제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여 자원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한다.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 재화, 서비스, 생산 요소 등이 거래를 통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배분되므로 거래에 참여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득의 합, 즉 사회 전체의 이득이 극대화된다.

[매]

암호화폐 투기 확산으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암호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의 자산일 뿐이라며,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어려우며 개인 차원에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무엇으로 불리든 간에 전통적인 화폐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화폐가 되기 위해선 안정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하루에도 수십, 수백 퍼센트씩 오르내리는 큰 변동성을 가진 자산이 화폐로서 기능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런 본질적 논의를 떠나 이미 수백만명의 투자자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다, 거래소들이 난립하면서 무늬만 암호화폐인 코인들을 유통시켜 투자자들이 큰 피해에 노출돼 있는 현실을 방치해두긴 어렵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배]

정보 사회가 가져다준 편리함의 이면에는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 문제가 존재한다. 국민이 아닌 국가 기관이 정보를 독점할 경우 감시 사회가 도래하고 왜곡된 정보를 대중하게 전달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한편 개인 및 국가 간 정보 격차가 소득 및 국가의 빈부 격차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보의 소유와 활용 능력에 따른 사회 불평등 구조가 형성되고 사이버 범죄, 사생활 침해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 유출, 지적 재산권 침해,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악성 댓글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인간관계가 매개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형성되면서 피상적으로 변화될 수 있으며, 인간 소외 문제도 심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우선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는 사생활과 개인 정보 보호, 정보 격차 해소 등과 관련된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 또한, 국가 권력의 감시와 정보 통제를 막기 위해 정보 처리 과정을 공개하고,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개인은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고 가상 공간에서는 누리꾼 예절(네티켓)을 지켜야 하며, 악성 댓글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사실을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

자식을 낳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선택 영역에 속하는 문제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급격한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종래의 농경사회와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식이 갖는 의미는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대인은 자식의 양보다 질을 선택하게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선택에 아무도 간섭할 수 없고 간섭해서도 안 된다.

정부가 아무리 출산을 장려한다 해도 정작 본인이 자식을 많이 낳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것으로 끝이다. 따라서 정부가 무리한 방법까지 동원해 가면서 출산을 장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경제구조를 저출산율의 상황에 맞춰 조정해 나가는 것이 더욱 현명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생산방식, 지금의 국민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출산율의 저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러나 출산율의 저하를 주어진 여건으로 보고 새로운 틀을 짤다면, 일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스런 상황으로 치달지는 않으리라 믿는다.

[애]



식사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교인을 향한
인류의 죄에서 눈 돌린 죄악을 향한
인류의 금세기 죄악을 향한
인류의 호의호식을 향한
인간의 증오심을 향한

<다음 장에 계속>

우리들을 향한
나를 향한

소말리아
한 어린이의
오체투지의 예가
나를 얼어붙게 했다.
자정 넘어 취한 채 귀가하다
주택가 골목길에서 음식물을 게운
내가 우연히 펼친 <TIME>지의 사진
이 까만 생명 앞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자]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영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로 대표되는 복지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복지의 확대는 국민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렸고, 재정 지출은 견잡을 수 없이 늘어났다. 1970년대 들어 영국의 복지 지출은 국민 총생산의 약 30%에 육박하였다. 공공 부문 파업과 제1차 석유 파동이 겹치며 영국 경제는 무너져 내렸고, 1976년 급기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 금융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영국의 현실을 ‘영국병’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1979년 집권한 보수당의 대처 수상은 각종 국유화와 복지 정책 등을 포기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중시하는 경제 개혁을 추진하였다. ‘대처리즘’으로 불리는 개혁의 내용은 복지를 위한 공공 지출의 삭감과 세금 인하, 국영 기업의 민영화, 노동조합의 활동 규제 등이었다. ‘영국병’을 치유하였다는 대처 수상에 대한 평가는 ‘영국을 가장 많이 변화시킨 선구자’에서부터 ‘영국을 가장 불평등한 국가로 만든 인물’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논제 I]

제시문 [가]~[바]를 유사한 관점을 가진 것끼리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501자 이상~600자 이하: 배점 2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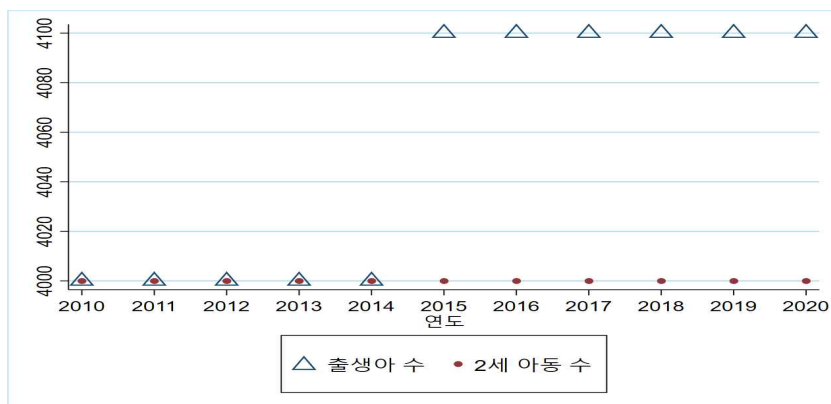
[논제 II]

[논제 I]의 두 관점 중 자신은 어느 관점을 지지하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고, 그 관점에서 제시문 [사], [아], [자]를 평가하시오. [601자 이상~700자 이하: 배점 40점]

[논제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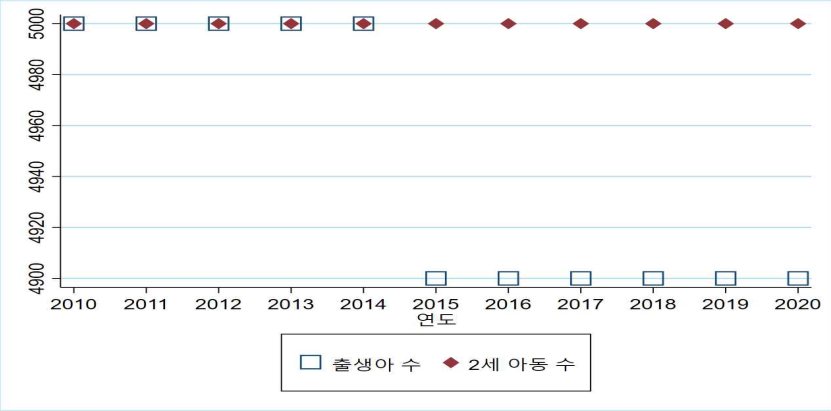
국가 K는 지역 A와 지역 B, 두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역 A는 지역의 아동 인구를 늘리기 위해 2015년부터 출산 가구에 출생아 1명당 500만 원을 1회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정책을 시행했다. <자료 1>은 지역 A의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출생아 수와 2세 아동 수를 보여주며, <자료 2>는 같은 기간 동안 지역 B의 연도별 출생아 수와 2세 아동 수를 보여준다. <자료 3>은 지역 A와 지역 B의 어린이집 수, 어린이집 이용 유자녀 가구 비율, 육아휴직 경험에 있는 가구의 성별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한 수치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지역 A와 지역 B는 자료에서 제시된 것 이외의 다른 특성은 동일하다. 또한 국가 K에서 해외로의 인구 이동이나 해외에서 국가 K로의 인구 유입은 없다.

<자료 1> 지역 A의 출생아 수와 2세 아동 수의 추이



<뒷면에 계속>

<자료 2> 지역 B의 출생아 수와 2세 아동 수의 추이



<자료 3> 지역 A와 지역 B의 양육 환경 비교

	지역 A	지역 B
어린이집 수	200개	400개
어린이집 이용 유자녀 가구 비율(%)	60	90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유자녀 여성의 비율(%)	40	85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유자녀 남성의 비율(%)	10	55

- (1) <자료 1>과 <자료 2>의 결과를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지역 A의 출산장려금 정책을 평가하시오.
- (2) <자료 3>을 근거로 출산장려금 정책 시행 이전에 지역 A와 지역 B에 출생아 수와 2세 아동의 수에 차이가 존재하는 원인을 설명하시오.
- (3) (1)과 (2)에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시문 [사]의 견해를 평가하시오.
-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쓰시오: 배점 35점]